

유성옥 작가 ‘꽃에게 모호함을 묻다’

2024 부산국제사진제 전시... 9월 22일(일)까지 부산항 제1부두 창고



제8회 부산국제사진제(8. 22~9. 22.)에 대구출신 유성옥 사진작가가 ‘꽃에게 모호함을 묻다(Ask the flowers for ambiguity)’라는 주제로 참가했다.

부산항 제1부두 창고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서 자유전에 참가한 유성옥 작가는 꽃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통해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과 철학을 선보였다.

유성옥 사진작가는 “꽃을 대부분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촬영을 하지만, 한 차원 높여서 꽃이라는 대상체 너머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형태에 본능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나를 찾은 그런 기분으로 사진 촬영을 했다.”며, “형상 속에서 어떤 여성의 몸, 신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전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꽃을 가지고 추상적인 관념을 자연스럽게 넣은 사진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꽃을 대상으로 바라보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상적 영혼과는 다른 모호함의 결정체를 표현한 유성옥 작가는 단순한 꽃의 형태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이미지, 특정 형태의 내적 표현 그리고 자아의 본능적이고 가시적인 형상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김양수 전 동명대 사진영상학과 교수는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대상을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데, 유성옥 사진작가는 오랜기간 사진 활동을 하셨고, 일반 사진작가들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어떤 형상이나, 그리고 의미 분석이 남들보다는 조금 독특해, 꽃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적인 사진이 아니라 유성옥 사진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 나올 수 있겠다는 강한 자신감이 있어 진행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말했다.

안상득 객원기자

천만에 주어진, 30 작은 선택이 살아 있는 곳
지역민을 위한 푸른방송 ch1



대구문화예술진흥원-대구간송미술관, 업무 협약 체결

대구문화예술진흥원(김정길 원장)과 대구간송미술관(전인건 관장)은 지난 2일(화) 지역 문화예술 및 관광의 발전과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개최했다.

협약식은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과 전인건 대구간송미술관장을 비롯한 두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역 문화예술 전문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예술인 교류, ▲문화예술 관련 정보와 현안 자료의 공유,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합동 전시 등 교류와 협력, ▲지역 문화예술 확산 및 관광 콘텐츠 활성화를 위

한 공동 사업 기획·추진 등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김정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은 “문화 보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대구간송미술관이 위용을 드러낸 만큼 두 기관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